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16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5일 뉴욕증시는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의 500억달러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데다 뉴욕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며 하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장대비 65.15p(0.75%) 떨어진 8,564.53을 기록.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JP 모건이 7% 이상 하락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5%, 씨티그룹 4% 이상 하락세를 기록.

S&P500 지수는 전장대비 11.16p(1.27%) 하락한 868.57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.38p(2.10%) 하락한 1,508.34를 기록.

이날 증시는 부시 행정부가 100억~4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보도로 인하여 강보합세로 출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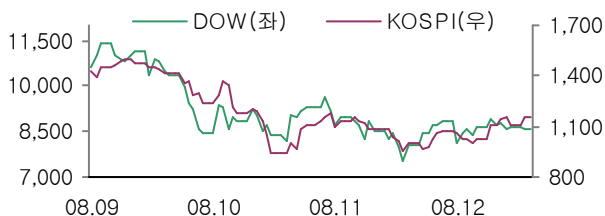
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합의파산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11월 뉴욕 제조업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.

뉴욕 제조업지수는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인 -25.8을 기록하며 경기후퇴 우려를 심화. 11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.6% 떨어지며 제조업 전반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재확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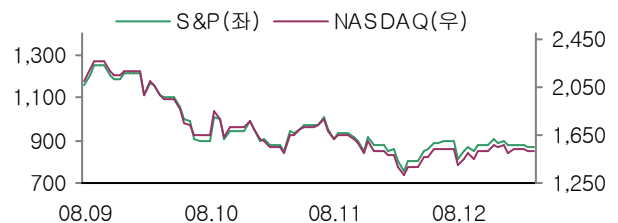
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가 발표되며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기록. 영국 HSBC는 10억달러 가량의 잠정적 피해를 입었으며 프랑스 파리는 4억7,000만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564.53	-0.75	-4.14	5.10	0.79	-25.02	-35.80
S&P(좌)	868.57	-1.27	-4.52	6.42	-0.54	-30.61	-40.83
NASDAQ(우)	1,508.34	-2.10	-4.03	7.89	-0.56	-33.30	-42.77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